

미분류 척추관절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말초관절염의 예후

한양대학교 큐마티스병원

이지현*, 김태환, 배윤상, 전재범, 정성수, 이인홍, 배상철, 유대현, 김성윤

목적 : 미분류 척추관절증은 알려진 척추관절염, 즉 강직성 척추염, 반웅성 관절염, 건선관절염, 염증성 대장증상과 관련된 관절염 등의 임상진단에 적합하지 않는 관절염으로 다양한 임상상을 특징으로 한다. 임상상 중 말초관절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의 양상 및 예후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 : 1991년 ESSG에서 제안한 척추관절증 진단기준에 합당한 미분류 척추관절증으로 진단받은 97명의 의무기록을 고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, 검사실 소견, 치료 및 경과를 분석하였다.

결과 : 평균 2.7 ± 1.7 년간 (1~7년) 외래 추적 관찰하였으며 남자가 50명, 여자가 47명이었다. 발병 연령은 7세에서 57세 (평균연령 33.3세)였으며 유병기간은 평균 6.56년이었다. HLA-B27은 79(81%) 명에서 양성이었다. 고관절 및 견관절을 제외한 말초관절염은 86명 (89%)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주로 단일 관절 침범 혹은 소수 관절 침범이었다. 관절부위로는 슬관절, 발목관절의 침범이 가장 많았다. 말초관절염을 가진 86명의 환자 중 24명 (28%)에서 지속적인 말초관절염이 있었고 이들에서 질병의 유병기간이 의미있게 길었다. 지속적인 말초관절염을 보인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서 발병연령이나 성, 나이, HLA-B27의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결론 : 1) 미분류 척추관절증에서의 말초관절염은 양성의 경과를 보였고 단지 일부의 환자만이 지속적인 말초관절염을 나타내었다. 2) 질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말초관절염을 보였으나 발병연령, 성, 나이, HLA B-27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.

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심 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이상의 빈도 연구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

박용인*, 배우형, 김성일, 전국진, 헝택종, 곽임수, 신영우, 나하연

목적 : 강직성 척추염의 심장 침범은 잘 알려진 합병증이다. 대동맥 장애, 심장 전도 장애 등이 주요한 합병증으로 그 빈도는 각각 6~10%, 10~50%로 보고되며 그 외 승모판 부전, 심막염 및 심근병증도 일으키며, 포도막염이나 말초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저자들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심장 침범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 초음파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.

방법 : 1998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환자 중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HP SONOS2500 심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심 이상을 확인하고 전 후 대동맥 벽 및 대동맥 기시부 두께와 심 구름을 측정하였다. 임상적 인자로 ESR, CRP 및 HLA-B27 양성 유무, occiput to wall 간격, Schober test, chest expansion test, Finger to flow test, 말초 및 중추 관절 침범 유무, 포도막염 유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.

결과 :

- 총 14명(남9, 여5), 연령 29 ± 8 세, 아환 기간 4.6 ± 5.1 년, HLA-B27 양성 13명 (93%)이었다.
- 20명에서 포도막염 (14%), 9명 (60%)에서 말초 관절염이 있었으며, Schober test 양성 11명 (74%), chest expansion test 양성 9명 (60%)였다.
- 심 초음파 검사상 승모판 일탈이 1에 있었으나, 심전도 검사에서 전도장애가 있는 예는 없었다.
- 전 후 대동맥벽 및 대동맥 기시부 두께는 모두 정상 범위였고, 대동맥 판 및 승모판의 이상이나 좌심실 기능이상이 있는 예는 없었다.

결론 : 저자들의 연구에서 기존의 보고와는 달리 심 초음파 검사상 승모판 일탈 1에 외 심장 이상이나 전도장애가 있는 예가 없었고 대동맥을 침범한 예가 없어 그 빈도가 아주 낮았으나 본 연구의 대상 환자의 이환기간이 다른 보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대상군이 적어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